

해남군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속도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

기업도시 내 58만㎡ 규모 조성

5년간 국비 200억 등 400억 투입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해양관광벨트의 거점이 될 생태정원도시로 조성된다.

해남군은 최근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태정원도시 조성은 정원의 개념을 도시 전체로 확장한 새로운 도시건설의 패러다임으로, 지역과 도시의 개성이 드러나는 차별화된 자연·문화·도시 경관이 정원이 되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정주여건의 개선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국 거점도시에 생태정원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시는 대통령 지역 공약 및 산림청 국정과제에 반영돼 1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부터 5년간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 4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정원을 기반으로 한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내 58만㎡에 조성



솔라시도 서남해 생태정원도시 조감도.

될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시는 진입 관문으로서 랜드마크가 될 서남해 상징정원, 활동성을 강조한 영암호 수변정원, 생태경관을 담은 도시와 자연의 연결부가 될 금호호 생태정원, 산지락과 숲을 도심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구상리 숲정원, 그린 인프라가 접목된 가로숲정원의 공간 계획이 포함돼 있다. 기후위기와 팬더믹 영향에 대응한 탄소중립, 스마트 등 개념을 연계하여 생태도시, 환경도시, 도시숲, 정원길 등 다양한 주제의 정원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솔라시도기업도시에는 올해 개장한 산이정원을

비롯해 9개의 민간정원도 조성되고 있어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사업과 맞물려 도로 10분 이내에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정원도시로의 지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활성화와 서남해안 관광활성화의 기반이 될 생태정원도시의 의미 있는 첫 발을 떼게 됐다"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원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업도시 개발과 발맞추어 효과적인 정원도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방세 납부 시기, 노래 들으면 알수 있어요

목포시 홍보용 음원 제작 송출

목포시는 지방세 납부를 위한 홍보용 음원을 제작했다.

목포시는 시민들이 자동차에 연달아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방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용 음원을 제작해 송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홍보 음원에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납부시기,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지방소득세 신고 시기가 담겼다.

해당 음원은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무료 제작됐으며, 시 홈페이지와 목포시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들을 수 있다. 시는 차량을 이용해 가두방송도 전개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에 대한



지방세 납부 유튜브 썸네일 화면.

홍보를 통해 납부 시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세입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고향사랑기부 '동참'

지사장·직원일동 500만원 기부

영광군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가 영광군청을 방문해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 친화적으로 농어촌 정비 사업과 농지 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 기반 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 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정경훈 영광군지사는 "이번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모금된 기부금이 농업인 생활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장세일 영광군수는 "영광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소중한 따뜻한 기부에 동참해 주심에 감사하다. 모금된 기부금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사용



정경훈 지사장과 장세일(오른쪽) 영광군수.

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며 "앞으로도 영광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암 농정혁신한마당...미래 농업 방향 모색

11~12일 영암실내체육관 개최

영암군이 오는 11~12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2024 영암 농정혁신한마당'을 개최한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가치 있는 협치 농정, 같이 해요'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기후 위기, 쌀값 하락, 농촌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미래 농업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농업혁신정책 제안대회, 농정혁신한마당 기념식, 김미화 토크콘서트 등으로 펼쳐진다. 농업혁신정책 제안대회는 김태준 박사의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정혁신' 강연, 읍·면 농업혁신정책 발표로 열린다.

농정혁신한마당 기념식에서는 '영암형 농정대전환 프로젝트 발표' '품목별협의회 출범식' '영암 농업인 대상' 등으로 미래 농업의 방향이 제시된다.

영암농업인 대상은 품목별 농업인 대상, 지역발전 농업인상, 농업인 단체 우수회원상 3개 분야로 나눠 27명에게 상을 수여한다.

혁신과 협치로 영암의 미래농업 정책을 수립·실천에 나설 품목별협의회는 6개 분야 17개 품목에 376명의 위원으로 출범한다.

우승희 군수는 민선 8기 영암군의 농정혁신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영암형 농정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4개 분야 19개 전략, 62개 중점사업으로 재편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6개 비전도 선포된다. 영암군민회관에서는 '우수농식품 품평상대회'도 열린다.

부대행사로 ▲가래떡 행사와 차봉사 ▲김밥 나눔행사 ▲쌀강장·습사탕·인절미 만들기 체험 ▲농특산물·가공식품 판매관 ▲영암 프렌즈샵 등이 펼쳐진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 대한민국 분재 대전

8일부터...500여점 선 보여

신안군 1004섬 분재공원에서 오는 8일부터 10일간 '2024 대한민국 분재 대전'이 열린다.

이번 대전은 신안군 분재정원에서 보유한 작품 200여 점과 분재 애호가 작품 200여 점 등 총 500여 점이 선보인다.

신안군 특별전, 분재 조경수 특별전도 함께 열어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재 교실, 소품 페어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올해 행사는 미주분재연맹 회장이자 세계분재우호연맹(WBFF) 부회장인 잭 서스틱(Jack Sustic)을 포함한 미국분재연합회 임원 13명이 참석한다.

서스틱 회장은 2022년에 신안군 분재정원을 방문해 "1004섬 분재정원보다 아름다운 분재원을 본 적이 없다"고 감탄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전이 분재 예술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야)금야금 주말 야시장' 행사 모습.

완도 '야금야금 주말 야시장' 3천여명 북새통

상권 활성화·관광객 유치 성과

완도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야(夜)금야금 주말 야시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0월19~20일, 11월 1~2일 총 4차례 진행된 주말 야시장에 3000여명이 방문하고 상가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말 야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가족게임, 노래자랑,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가 곁들여져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관광객 김모(광주 서구)씨는 "야금야금 주말 야시장에 대한 입소문을 듣고 완도를 찾았는데 만족도가 높다"며 "맛있는 해산물을 맛보고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야시장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

완도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야시장에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며 "야시장이 완도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기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11월호

2024년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익어가는 우리 술의 매력

- 청년 양조인들의 도전 참신해진 '남도 전통주'
- 남도 전통주는 어떤 술이 있나
- 자존심으로 최고를 빛는 막걸리 장인들
- 호남 최초 전통주 복합문화공간 '요담엔'

맛과 함께 장성 여행

황룡강변 하늘숲길 애기단풍

기획-지금은 아트페어 시대

키아프·프리즈 서울을 가다
동시대 세계·한국 미술을 만나는 장

'아트:광주:24'가 남긴 것
관람객 2만 5000여 명 발길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②
융접기 든 재미 조각가, 존 배

에향 초대석

과학과 대중 이어주는 과학커뮤니케이터
이정모
"자연사에 인류 지속가능의 답이 있어요"

에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

고요함으로 향하길
전남의 사찰

문화화재
광주 출신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의 의미

호남의 누정@-광주 아문당
조선 선비 은일의
미학 품은 정자

한국의학진흥원·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에필로그

석지 채용신
전통양식을 계승한
마지막 초상화가

회제의 현장
월간 <에향> 창간 40주년
마흔해 퀘적 담은 아카이브전